

여행

계곡따라 '33경' 무릉도원 예이런가



천일폭포

무주

여름의 끝자락 한적하게 피서를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곳이 바로 무주다. 흔히 무주라고 하면 겨울 스포츠의 꽃, 스키와 보드를 즐기기에 매우 적합한 곳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이런 고정관념을 깨는 다양한 절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최고의 경승지로 꼽히는 구천동 33경부터 우리나라 100경 중 하나로 꼽히는 적상산 등 볼거리와 먹거리가 다양한 무주로 떠나보자.

◇매혹적인 천일폭포-노히빙지 탁월한 머루 와인도 실컷 =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면 마치 여인들의 치마와 같다고 해 적상(赤裳)이라 이름 붙은 적상산은 해발 1034m로 우리나라 100경 중 하나다. 천일폭포·송대폭포·장대바위·장군바위·안렴대 등의 자연명소를 간직하고 있다. 정상 분지의 양수 발전소 상부면인 산정호수(적상호)와 안국사 등 유서 깊은 문화 유적이 운치를 더해준다.
하늘 아래 단일 폭포라 해서 이름 붙여진 천일 폭포, 뜻하지 않은 보물을 발견한 느낌이다.

저장고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머루와인 비밀의 문은 자연적으로 연중 13~17도의 최적의 온도가 유지된다. 연인들을 위한 와인 키핑장을 비롯해 결혼과 만남, 승진에 관한 축하 문구를 와인 병에 새겨 선물할 수 있는 애칭조각와인 택배 이벤트가 운영해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사고(史庫) 지키기 승병의 안식처 안국사 = 머루와인동굴과 천일폭포를 구경한 후에 차를 타고 정상으로 가다보면 1277년에 창건되었다는 안국사에 닿는다.
고려 충렬왕 3년(1277) 월인 스님이 창건했으며, 조선 때 태조 이성계의 명을 받아 무학대사가 손질해 고친 절이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적상산에 사고가 들어선 다음부터 호국사와 더불어 사고를 지키는 수호사찰이 돼 조선왕조가 끝나는 날까지 그 임무를 수행했다. 안국사는 1989년 적상산 양수발전소 건설로 수몰되어 본래의 터에서 남쪽으로 1km 떨어진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다.
안국사 계단을 올라서면 적상산의 경치가 한눈에 들어온다. 벌써부터 바알간 단풍이 든 나무들도 들성들성 보인다. 시원한 바람이 등허리에 스며들면 가을이 성큼 다가옴을 느낄 수 있다.
안국사에는 세계 각국의 불상 등을 수집해 보관하고 있는 성보박물관이 있다. 대부분 박물관이 인근 불교유물만을 모아두고 있지만 성보박물관은 전세계의 불상들을 수집해 전시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불상들을 감상할 수 있다. 주요문화재는 보물 제1267호 영산회상괘불과 유형문화재 제42호 극락전, 제85호 호국사비 등이 있다.
특히 안국사로 올라가는 길은 송림이 우거져 있어서 솔내음을 실컷 만끽할 수 있다. 꼬불꼬불 오르는 길은 연인이나 가족들이 적상산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멋진 드라이브 코스다.
◇눈(雪)이 없어도 눈(目) 시리게 아름다운 덕유산 = 덕유산은 국내 최고의 눈꽃 산행지다.



덕유산 곤돌라

시린 천일폭포 무더위 쉬어가고
초록 병풍 안국사에서 시름 훌훌~
덕유산 깊은 산세 그대로가 예술

정상으로 가는 드라이브길 중간 지점에 차를 세워두고 5분간 걸어서 올라가면 청량한 폭포 소리와 함께 수십 미터의 암벽을 타고 내리는 한 줄기의 폭포수가 손님을 맞이한다. 우렁차고 강인한 남성 이미지 보다는 가냘프지만 매혹적인 느낌으로 방문객을 유혹한다. 병풍처럼 암벽이 둘러 쌓여 있고,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려고 공경 숨겨둔 보물창고와 같다. 시원한 청량음료를 마시고 나오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건 그 때문일 지도 모르겠다.
천일 폭포 인근에는 문화 유적 뿐 아니라 무주의 대표적인 특산물, 산머루와인의 참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머루와인동굴이 있다. 머루와인의 숙성 및 저장, 판매공간인 머루와인동굴은 와인 하우스와 머루와인 비밀의 문으로 구성돼 있다. 와인 하우스에는 반딧불농특산물 판매장과 와인카페 겸 전통찻집, 그리고 머루와인 비밀의 문(270m)에서는 와인카페와 와인시를 및

겨울이면 스키어들과 등산객으로 붐비지만 여름의 덕유산도 그에 못지않다. 특히 우리나라 경승지 중 가장 아름다운 구천동 33경(景)은 나제통문(羅濟通門)에서 덕유산 국립공원의 중턱 아래 위치한 백련사까지 36km에 이른다. 계곡의 맑은 물과 절묘한 기암 등이 어울려 계절의 변화에 따라 독특한 풍치를 자아내는 제1경인 나제통문을 비롯한 은구암·와룡담·인월담·수심대·구천폭포 등 구천동 33경이 계곡을 따라 이어져 있다.
산행이 힘든 사람은 곤돌라를 이용할 수 있다. 2600m에 달하는 길이로 20분간 올라가는 곤돌라는 덕유산의 산세를 살살이 훑을 수 있다. 해발 1520m의 설천봉까지 곤돌라를 타고 오르면, 설천봉에서 향적봉까지 약 20분 정도면 충분하다.
향적봉 정상은 사방이 탁막없이 트였다. 이곳에서 서면 덕유산의 부드러운 능선과 함께 지리산, 가야산, 황매산, 대둔산 등 굽적한 산세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산이 험하지 않아 노부부나 가족들이 쉬엄쉬엄 오르기에 좋으며, 정상에 오르면 적상산, 마이산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조망이 빼어나다.
/시민기자=박수정(주미로스튜디오)



안국사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아리랑하우스의 여름특선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역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입니다!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홀플러스 건너편)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과주향 맛집
광주광역시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www.geumsoojang.com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